

시론



김 선 기 전남도립대 교양학부·문학평론가

가수 나훈아가 데뷔 58년 만에 은퇴를 시사했다. 최근 자신이 쓴 편지에서 "고마웠습니다!... (중략) ... 한발 또 한발 걸어온 길이 백 년을 훌쩍 넘어 오늘까지 왔습니다. 마이 크를 내려놓는다는 게 이렇게 용기가 필요할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박수칠 때 떠나라'라는 쉽고 간단한 말의 깊은 진리의 뜻을 저는 따르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다. 나훈아의 갑작스러운 은퇴 소식이 팬들은 물론이거니와 가요계도, 국민도 충격적 파장이 매우 크다. 히트곡이 무려 120여 곡으로 국내 최고이고, 200여 장의 앨범과 800여 자작곡을 포함해 2천600여 곡을 발표한 '가황(歌皇)'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나훈아에게 그토록 빠져있을까.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나훈아만이 갖는 독특한 페르소나가 그의 음악과 공연 스타일을 관통하고 있는 점이다. 나훈아의 음악과 퍼포먼스 스타일의 중요

'인간 나훈아'의 한 시대의 기록

한 부분은 스토리텔링에서 찾을 수 있다. 스토리텔러로서의 나훈아의 페르소나는 그의 음악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의 노래 중 많은 부분이 설득력 있는 내러티브(narrative)를 전달했으며, 그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끌어내거나 가슴 아픈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음악 평론적 시각에 불과하다. 그가 60여 년 동안 무대에서 국민적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인간 나훈아'의 진정성이다. 그는 대중가수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와 예술적 세계관, 민족의식이 투철한 사람이다. 나훈아와 관련한 많은 일화가 그것을 잘 대변해준다. 그는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때 당시 여당으로부터 공천을 제의받았다. 하지만 그는 "송충이는 술을 먹어야. 난 가수가 천지이다."라며 단칼에 거절했다. 정치인들이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뭘 하면 나라에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지 않고, 자당의 의석 늘리기에 혈안이 된 현실을 마뜩잖게 여긴 것이다. 특히 1996년 9월28일 일본 오사카 공연 때의 일이다. 공연 마무리로 2천여 관객과 함께 '돼지나 칭칭 내네'를 합창하면서, 즉흥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란 가사를 넣어서 불렀다. 그것도 일본 한복판에서 말이다.

또 있다.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 공연을 제의받았을 때다. 당시 외국 가수들은 내한 공연을 할 때 과한 조건을 제시하는 반면, 한국 가수들은 미국을 구경하러 가는 기분으로 공연하던 게 너무나도 자존심 상했던 모양이다. 나훈아는 미국공연을 거절하려는 마음으로 굉장히 허세(?)를 부려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내 방까지 용단을 깔고, 둘째 방은 100평 이상, 셋째 전용 헬기 준비, 넷째 스태프 50명 이 탈 리무진을 대고, 40명의 보디가드를 붙이라고 조건을 단 것이다. 그런데 미국 에이전시에서 그가 제시한 모든 조건을 흔쾌히 받아들여 공연은 성사됐다. 이를 계기로 나훈아는 한국 가수로서 자존심과 품격을 지켜냈고, 나아가 '문화 대한민국'의 국격을 드높이는 데에 공헌했다. 본명 최홍기 대신 나훈아로 살아온 그에게 곡질이 왜 없었겠는가. 그래서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라고 고백하지 않았나 싶다. 어쩌면 그 고백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 그렇다. 나훈아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의 고뇌와 희망, 꿈을 음악으로 풀어내며 대중과 깊은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한 가수다. 그래서 그의 음악은 그 자체로 한 시대의 기록이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社說

교육발전특구 선정 광주·전남 지역 혁신의 계기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유형(광역지자체 신청)에 포함된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최대 100억 원을 지원받아 공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정주생태계 활성화에 나선다. 협약형 특성화고, 늘봄 학교 확대를 비롯한 개혁 과제와 인공지능(AI) 등 특화산업 중심 인재 육성 및 취·창업 지원, 지역혁신 중심 대학(RISE)과 연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이 그것이다. 전남에선 1유형(기초지자체 신청)에 광양(K-첨단산업연계형), 3유형(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에 나주(에너지 중심 혁신도시형), 목포·무안·신안(해양관광 융복합형), 영암·강진(미래 농생명산업형) 등 6곳이 선정됐다. 전남권은 전체 인구 대비 인구 배정자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특성을 반영해 통합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인재 양성 및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됐다.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공공기관 등이 자·산·학

협치 시스템을 운영, 공을 들여온 광주시와 전남도는 환영하고 있다. 앞으로 교육부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및 전문가들과 함께 수립할 세부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한편,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하는 등 특례 혜택을 부여한다. 교육부는 시범지역 우수 모델들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체계적 관리를 추진하며, 이에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구분한다. 광주와 전남 기초지자체 3유형은 선도지역으로 3년의 시범 운영기간 이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종합평가를 거쳐 정식 지정된다. 광양은 관리지역으로 매년 연차 평가를 통해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와 지원을 받는다. 국가 현안인 불균형과 인구소멸의 해법이다. 수많은 최고의 인재를 기우고 이를 통해 지역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화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전력해야 한다. 교육발전특구를 광주와 전남의 미래를 바꿀 중대한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가장 강력한 원팀'으로 더 진화하는 달빛동맹

광주와 대구시는 공학특별법 동시 제정·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 등 속연속 속도감 있게 풀어냈다. 2013년 3월 '달빛동맹 협약'을 체결한 이후 민선8기 들어 영호남 변영과 화합을 더 공고히 하고 있다. 1천800만 국민의 관심과 성원을 안고 제2기 달빛동맹발전위원회가 출범했다. 핵심 목표는 남부거대경제권 형성이다. 양 거점도시의 비상을 위한 구심체 역할에 충실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협력사업은 달빛철도 조기 건설, 군공항 이전, 청년위원회,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 교류, 시립예술단 공연 등 경제와 문화, 산업, 교육을 아우른다. 2038년 아시안게임 유치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달빛산업동맹 전담팀(TF)을 구성, 남부경제권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하늘길·철길에 이어 산업동맹의 실질 성과 창출에 중점 협력하기로 했다. 2·28과 5·18 기념식 교차 참석을 통해 대구와 광주는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도시로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한다는 다짐이다. 2·28은 1990

년 대구지역 8개교 학생들이 독재정권에 맞서 자발적으로 일으킨 광복 이후 최초의 학생 민주 운동으로 3·8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민주주의 수호에 양 도시는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다. 서로 맞닿아 있는 2·28과 5·18 정신이 오늘날 굳건한 달빛동맹으로 빛을 발하고 있다. 대구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따 명명한 달빛동맹이 10년 넘게 이어오면서 소기의 결실을 맺고 있다. 광주에서는 228년 시내버스를, 대구에서는 518년 시내버스를 운행, 일상에서의 동질감도 돈독하다. 2기 위원회는 각 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28명으로 구성됐다. 가장 모범적 협력관계로 불리는 동맹이다. '더욱 강력한 원팀'으로 거듭나는 중이다. 달빛동맹은 한단계 더 진화해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하는 남부거대경제권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을 놓는 일이다. 동서 화해와 공동 발전은 물론 국민대통합을 선도하기 위해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기고



문 인 기 전남도 지역계획과장·공학박사

1992년 8월 적대국 중국(당시 중국)과 수교협정이 체결되며 온 세상이 떠들썩했다. 그 무렵 대학을 갓 졸업하고 공직 햇병아리였던 필자는 시선 이백과 시성 두보의 시상을 찾아 그곳으로 훌쩍 떠나고 싶었다. 용기가 필요했다. 지금 아내와 의기투합에 나섰다. 그렇게 '계림산수갑천하'를 찾아 떠났다. 두려움 반으로 구이링, 베이징, 시안 등 여기저기를 다녔다. "천원만" 하며 졸졸 따르던 그곳 아이들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측은하면서도 알잡아보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학교 담장에서 미장 공사를 하던 수 백명의 인력을 보면서 그 하나 된 힘에 놀라기도 했다.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30여년 전 중국 학교의 담장 인부들은 우리 건설시장 등 곳곳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언어 소통과 안전 의식에 문제가 있고 전문기술도 부족하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물론 동남아,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고용되고 있다. 한국인 건설 숙련공과 젊은 인재를 갈수록 찾기가 어렵다며 여기저기 걱정스러운 푸념이 흘러나온다. 이 뿐 아니다. 부동산 경기 약화와 함께 고금리로 인한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은 건설 분야를 침체의 늪에서 더욱 허덕이게 하고

건설 불황과 헤어질 시기

있다. 신규 아파트 시장조차 20%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다 보니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경영진의 지시가 떨어졌다는 어느 중견 건설사 간부의 뉘그러다. 부동산 위기까지도 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기반이다. 하지만 낮은 임금과 위험하며 힘들다는 비판적 시각이 많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늦었지만 건설시장이 위축되지 않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적정임금제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만 안정적으로 유능한 젊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건설기능인 경력 관리 또한 필요하다. 기능인 등급제와 적정임금제가 병행된다면 숙련 인력의 이직률이 크게 낮아질 것이다. 예비기술인 양성도 손을 놓을 수 없다. 지난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특성화고에 도입한 '건설 뉴 마이스터' 과정도 그런 일환이다. 전남에서는 목포공고와 영암 구림공고가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대학의 건설 관련 학과까지 확대돼야 한다. 전남도에선 외국인 건설노동자의 취업비자 취득도 돕고 있다. 최장 4년10개월 취업이 허용되는 비전문 취업비자(E-9)를 국내에서 갹신 가능한 숙련기능 인력비자(E-7-4)로 변경 취득받는 외국인노동자의 수를 확대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 중이다. 이 밖에도 건설업 적정이윤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적지 않은 업체들이 제 값 못 받고 일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낙찰 하한율이 상향돼야

한다. 적정 이윤 보장은 부실시공 방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게 된다. 저가 위주의 계약 만을 선호하면 중공의 피해자는 결국 국가와 국민이 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손해가 예상되는 공사에 대한 적격자 지위 포기 업체를 무작정 부정당 업자로 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건설업체의 자구책 마련도 절실하다. 단순 공사 시공 보다는 건설 특허, 건설 신기술과 신재생에너지 등 시대의 흐름을 읽는 다변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과 연구 개발 및 전문가 육성도 소홀히 하면 안된다. 4월 건설업 위기설이 확산되는 현실에서도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신념을 갖고 내일을 내다보는 매의 눈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는 이미 IMF 체제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 국가가 나서고 국민이 하나가 됐다. 그렇게 IT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 기반은 오늘날 K-POP 등 문화예술과 음식, 의류, 의술, 방위산업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이는 건설시장도 현재의 어려움을 딛고 더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준다. 과거 국가의 성장을 주도했던 건설업에 회생시켜야 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공공투자 확대를 통해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즉시 서둘러야 한다. 소상공인과 일용직 근로자 등 서민 소득향상과도 밀접하기 때문이다. 기회의 문을 다시 활짝 열어보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국가와 지방, 업계와 기술자가 하나가 돼 건설 불황과 헤어지길 결심할 시기인 듯 싶다.

독자투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뱅킹, SNS, 쇼핑 등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생활에 있어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다. 이와 맞물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많이 발생했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종류와 수법 등이 다양해지고 진화해오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화나 PC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자행되는 금융사기의 일종으로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파밍, 문자결제사기(스미싱), 피싱 사이트 등 여러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처음 발생했을 때와는 달리 최근에는 문자결제사기(스미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 부고문자) 모르는 번호 혹은 심지어 지인들로부터 결혼, 부고문자에 나와

스미싱 문자 범죄 예방, 112 번호 세 개만 기억하세요

는 인터넷 URL 주소가 포함되어 있는 문자 ▲(국제, 국외발신) 머릿말에 '국외, 국제발신으로 귀하에게 ~이 발송되었습니다'라는 문자에 URL, 인터넷 주소 포함 ▲(택배사칭) '택배가 발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아래 URL을 클릭하세요'라는 문자 ▲(카드발급, 계좌개설) '(5566)카드가 발급되었습니다. 고객님의 발급내용이 아닌경우 1533-3824로 확인바랍니다'라고 해당 번호로 전화를 유도하는 문자 등이다. 이같은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때 어떤 것도 클릭하지 않는 상태에서 112로 신고해 예방하는게 가장 중요할 것이다. 만약에 놀랐다면 비행기모드로 설정해놓은 다음 112신고를 한 후 안내를 받아 조치를

하는 등의 행동이 필요하다. 비행기 모드로 설정해 놓으면 데이터 수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뱅킹, 카카오톡 등 데이터가 필요한 모든게 제한된다.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로 특히 피싱 범죄는 예방이 중요하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는데 본인이 그 상황에 맞닥뜨리면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흔들릴 수 있는 범죄이니 만큼 가족 및 주변에서의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의심스러울때 언제나 '112' 숫자 세개만 기억하면 어떤 문자가 와도 예방과 대응이 될 것이다. 피싱 범죄가 없어지는 그 날까지 전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 부탁드립니다. (허이록·고흥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물어는 詩 그물을 건다

유현주



배나무에 걸렸던 새그물을 건는다 실선도 장해인지 환하게 트인 시야 사람과 까치 사이에 휴전이 성립된다 겨누었던 눈총을 발목에 던져놓고 얽혔던 애증을 가지런히 푸는 사이 적의가 눈처럼 녹아 아지랑이가 피는 날

나름의 이유 있어 척지고 살았지만 한 하늘 나눠 갖는 공평한 목숨이라 꽃자리 다시 엮으며 마음을 합치는데 겨우내 속살 오른 나무의 마디마다 얼었던 경혈 녹아 맥박이 살아나고 사라진 집경을 지나는 바람조차 따스다 (시조집 '밭이 돌이 될 때', 책만드는집, 2023)

[시의 눈]

나주의 박씨는 천평봉의 배나무밭을 가꿨다. 매년 흐드러지는 배꽃이 지고 보송한 열매가 날 때부터 그는 새그물을 친다. 까치나 비둘기를 막아낼 작업을 하는 게지오. 현대, 올봄엔 그들과 얽혔던 애증을 풀까 생각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새와 자기는 척을 찌지만 실은 하늘 아래서는 공평하다 여기기 때문이지오. 그가 이맘쯤 배꽃 환한 날을 돌아본다. 폭설을 이긴 봄이 경혈에 온기를 넣습니다. 겨우내 앓고난 그는 깨달은 바 있지오. 그래 잠시 고개 들고 새들을 향해 무던장갑손으로 힘들게 손짓합니다. 문턱의 나무엔 그물을 씌우지 않을 작정인 이 손짓을 저 새들이 하 마 알까들리오. 유현주 시인은 충남 서산에서나, 2007년 4월 중앙시조백일장 장원, 2009년 제1회 천강문학상 입상, 2010년 매일신문 신춘문예 시조로 등단했습니다. 그는 가족사의 곡진한 고백록을 쓰듯 선대부터 자신에 이르는 그 연대기를 서사화하는 시인입니다. <노창수·시인>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8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편집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